

# GO! 진영 LPGA 올해도 제패한다



고진영이 24일 말레이시아에서 개막하는 LPGA 투어 메이뱅크 챔피언십에서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 LPGA 투어 메이뱅크 챔피언십, 말레이시아서 24일 개막

2017년 진출 후 매년 우승  
어깨 부상 후 2개월만에 복귀  
한국, 유해란·양희영 등 10명

한국에서 열전을 치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이번 주엔 말레이시아에서 이어진다.  
24일부터 나흘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파72·6536야드)에서는 LPGA 투어 메이뱅크 챔피언십(총상금 300만 달러)이 개최된다.

이달 10~13일 중국에서 열린 뷰익 LPGA 상하이, 17~20일 파주 서원밸리 컨트리클럽 서원힐스 코스에서 개최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이은 '아시아 스왑'의 세 번째 대회다.

이번 대회 이후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일본에서 토토 저팬 클래식도 개최되며, 미국으로 돌아가 3개 대회를 치른 뒤 시즌이 종료된다.

이번 대회엔 78명의 선수가 출전해 나흘 동안 컷

없이 기량을 겨룬다.

한국 선수는 유해란, 고진영, 안나린, 양희영, 최혜진, 신지은, 임진희, 이소미, 김아림, 성유진까지 총 10명이 출전한다. 현재 한국 선수 중 여자 골프 세계랭킹이 가장 높은 고진영(6위)이 거의 두 달 만에 실전에 돌아오는 것이 눈에 띈다.

고진영은 지난달 초 끝난 FIM 챔피언십에서 유해란과 연장전 끝에 준우승한 뒤 어깨 치료 등을 위해 출전하지 않다가 이번 대회로 복귀한다.

LPGA 투어에서 2017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승수를 쌓으며 통산 15승을 보유했던 고진영은 지난해 5월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 이후엔 우승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시즌엔 14개 대회에만 출전, 6차례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시즌 막바지까지 무승에 그치며 LPGA 투어 진출 이후 처음으로 우승 없이 한 해를 보낼 위기인데, 폭 쉰 고진영이 복귀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안방에서 열린 BMW 챔피언십에서 선전한 선수들도 기세를 이어가려 한다. BMW 챔피언십에서 공동 4위에 오른 성유진과 최혜진, 공동 6위로 마친 유해란, 공동 8위에 자리했던 임진희가 이번 대회에 모두 나선다.

특히 CME 글로브 레이스에서 현재 3위(2369.392점), 올해의 선수 포인트 4위(106점), 상금 5위(238만3312달러)를 달리며 이번 시즌 한국 선수 중 가장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는 유해란의

시즌 2승 도전이 주목된다.

세계랭킹 7위 셸린 부티에(프랑스)는 대회 2연패를 노린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지노 티피꾼(태국)과 LPGA 투어 역사상 두 번째로 9차 연장전을 치른 끝에 초대 챔피언에 올랐던 부티에는 직전 BMW 챔피언십에서 해나 그린(호주)과 한 타 차 2위에 오르며 타이틀 방어 준비를 마쳤다.

이번 시즌 평균 타수 1위(69.78타)인 티피꾼도 출전해 지난해 연장 패배의 설움을 버린다.

BMW 챔피언십에서 시즌 세 번째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세계랭킹 5위로 도약한 그린은 기세를 몰아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정조준한다.

/연합뉴스

# '전국체전 활약' 구례군청 씨름단 열기 잇는다

안산김홍도장사씨름대회·여자장사씨름대회 25일 개막...여자부 선채림·이세미 등 출전

구례군청 반달곰씨름단이 '위더스계약 2024 민속씨름 안산김홍도장사씨름대회 및 제4회 안산김홍도여자장사씨름대회'에서 열기를 잇는다.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대표적인 조선 후기 풍속 화가 단원 김홍도의 이름을 딴 씨름대회가 안산 와동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제105회 전국체전에서 활약했던 구례군청 반달곰씨름단이 다시 한번 메달 사냥에 나선다.

구례군청(감독 김승환)은 전국체전 씨름 여자 일반부에서 출전한 모든 체급에서 메달을 따냈다.

선채림이 매화급(-60kg)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이세미와 최희화가 국화급(-70kg)·무궁화급(-80kg) 경기에서 각각 3위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인 씨름의 부흥과 김홍도의 도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남자부 15개 팀(156명)·여자부 7개 팀(38명), 총 194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대회는 남자부 5체급(소백·태백·금강·한라·백두급) 개인전과 단체전(7체급·7인 1팀), 여자부 3체급(매화·국화·무궁화급) 개인전과 단체전(5체급·7인 1팀)으로 진행된다.

모든 경기는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예선-준결승 경기와 여자부 장사결정전은 3판 2선승제, 남자부 장사결정전은 5판 3선승제로 치러진다.

25·26일 여자부 체급별 개인전과 단체전, 27·31일 남자부 체급별 개인전과 단체전이 예정돼 있다.



구례군청 반달곰씨름단이 '위더스계약 2024 민속씨름 안산김홍도장사씨름대회 및 제4회 안산김홍도여자장사씨름대회'에서 우승을 노린다. 최근 막 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구례군청 선수단. <구례군청 반달곰씨름단 제공>

이번 대회는 KBSN 스포츠 채널과 대한씨름협회 유튜브 채널 '살바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씨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



## 광주시체육회장배 보디빌딩 대회 성료

### 45세 전정민 '오버롤 우승'

2024 광주시체육회장배 보디빌딩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지난 20일 광주대학교 호심관 대강당에서 '제7회 광주시체육회장배 생활체육 보디빌딩&피트니스대회'가 열렸다.

광주 지역 100여명의 보디빌더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25세이하급 최유민(씨티헬스체육관), 30세이하급 박건우(남경운 NC GYM), 35세이하급 김윤종(승룡헬스), 40세이하급 이광일(남경운 NC GYM), 45세이하급 전정민(기아자동차헬스), 50세이하급 한선영(라이브트니스), 60세이하급 이하서(기아자동차헬스), 60세이상급 권동열(상무스타트니스)이 각각 체급별 우승자로 선정됐다.

올해 45세 보디빌더 전정민(기아자동차헬스)은 모든 체급 우승자 중 가장 우수한 보디빌더로 선정되며 개인 첫 '오버롤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기아자동차 광주분공장 사내헬스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가족들과 동호회 회원들에게도 좋은 성적으로 한번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했다"며 "20년간 운동을 해왔는데 이번 대회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출전했다. 똑같이 운동을 해도 젊었을 때만큼 안 나오다니 힘들기도 했지만, 간절했던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시보디빌딩협회가 주최하고 광주시체육회, 대한보디빌딩협회, 광주대학교가 후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즐거움

# 문화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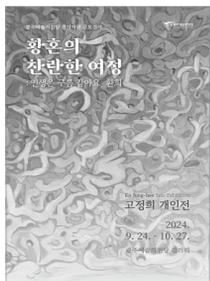


##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 광주상설공연(10월)  
일시 : 2024-10-05(토) ~ 2024-10-31(목)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0.31(목) 오후 7시 기획공연  
(강하달림 시월 Bluse)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고정희 개인전  
: 황혼의 찬란한 여정  
일시 : 2024-09-24(화) ~ 2024-10-2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